【국어 생활 논단】

한자 표기 原地音主義의 문제

김민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문제 제기

이웃나라 인명, 지명, 특히 한자로 표기된 중국과 일본의 지명을 어떻게 불러야 옳다고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자음으로 부르면 익숙한 발음으로 주체성 있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나, 반면에 그곳 원지음으로 말하면 생소한 발음으로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해 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기 쉽게 된다는 느낌이다. 우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옮겨 자세히 보고,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 인명, 지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 바뀌어 왔으며, 현행은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 1. 7. 문교부 고시 제85-11)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보기] 東京: 도쿄, 동경 上海: 상하이, 상해 등

2)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10. 20. 문교부 공표)

1.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2) 동양 관계
(①,②,③,④ 4개항 위 1) 제1~3조와 거의 같으나, 제4항 규정 없음.)
「편수 자료」 4 (1963. 7. 25. 서울: 문교부), 7면.

3) 들온말 적는 법(1948. 문교부 제정, 1952. 10. 30. 부산: 문교부)
붙임Ⅲ 다른 나라들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의 적기

1. 홀로이름씨의 옮겨적기의 원칙

○ 말 옮겨적는 원칙: 다른 나라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은 그 때 그 따위의 원음을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용어는 그대

로 따르기로 한다.

○ 관용어에 관한 규칙: 관용어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칙대로 한다.

(一) 중국 및 인접지의 현재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은 지금 그 따에서 부르는 음을 따라 적으며, 그 역사상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은 그 관용된 한자의 우리 나라 음대로 따라 적기로 한다. 그러나,

1) 역사상의 사람이라도 그 현재에 문제를 던지는 사람의 이름은 그 따에서 던지는 사람의 이름은 그 따에서 부르는 음을 따라 적음을 허용한다.

2) 한 따의 이름이 현재와 역사에서 한 가지일 적에는 현재의 이름과 같이 그 따의 원음을 따라 적음을 허용한다.

(二) 서양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이 영어 발음으로 관용된 것은 그 대로 따른다.

(三) 종래 우리 나라에서 써익은(慣用) 나라 이름 가운데 다음의 것들은 원음과 함께 사용함을 허용한다. 다만 도림 안의 것은 취하지 아니한다. 쭝화 민궈, 쭝궈-중국, 아메리까-미국, 쁘랑스-불국(불란서), 헬라스-끄리시아(희랍) 등.

현행 규정은 역사 지명과 함께 지명을 구분하여 현재 지명이기도 한 것을 제외한 역사 지명만을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절충의 묘를 살린 듯 좋게 보이나, 실제로는 전문가도 거의 불가능한 구분을 일반인이 구분할 것을 전제한 규정이다. 전문가에게 묻고, 애써 조사한 문헌에 따라 구분한대도, 그 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령, 현재 중국 지도에 나타난 고구려 지명을 이 규정에 따라 중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도 그것을 국사의 서술이라고 강변할 것인가?

4) 고구려 지명(현재 지명)

桓仁 환런, 輯安→集安 지안, 국내성 궈네이청, 丸都山城 완두산청, 將軍塚 장쥔중, 遼東 랴오둥, 遼西→랴오시, 高麗堡子 가오리부쯔

5) 국사 고구려사 기술의 예(밑줄 원지음)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통자강(佟佳江) 유역의 환런(桓仁) 지방에 자리잡았다. 건국 초기에 지안(輯安)의 궈네이청(國內城)으로 옮기고 활발한 전쟁으로 한(漢)의 군현을 공략하여 랴오둥(遼東)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그 지안에는 지금도 완두산청(丸都山城), 궈네이청, 장쥔중(將軍塚), 타이왕베이(太王碑) 등 유적이 옛 제국의 위용을 말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사는 일찍부터 1145년 金富軾 편찬, 「三國史記」와 1285년 一然禪師 편찬, 「三國遺事」에 기록된 우리 역사가 분명한데, 2002년 2월 중국의 이른바 "東北工程(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추진 선포로 표면화된 역사 왜곡은 우리의 삼국사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 더구나 이 공사가 고구려사를 파가려는 패권적 공작인 터에, 우리 국사 서술에서 위 5)와 같이 그 지명을 중국어로 부른다면 그 공사에 본의 아닌 찬동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외래어 표기법이 준수될 이유는 무엇인가?

2. 외래어 표기법의 유래와 의도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원지음주의의 효시는 위 3) 1948년 표기법으로 소급된다. 이 규정은 6·25전쟁을 겪은 탓인지 기록

된 그 명문이 보이지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이 소략한 직간접적 술회식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래 7) 기록은 이 규정의 보완인지 용례 개개인의 자문인지 분명치 않고, 8) 그 실질적 내용이 최현배(1942) 개인안과 우연인지 인용인지 거의 같다. 당시 일련의 기록에 비추어 이 정책은 국장 외솔 주도하에 입안되고 시행되었음을 직감케 한다.

6) “들온말 적는 법”(1948) 제정 경위

이 “적는 법”은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1948년에 걸치어 “학술용어 제정 위원회”의 제20 분과 “언어과학 위원회”에서 토의 제정한 것인데, 그에 참예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22명 명단 생략) 4285(1952)년 3월 일
「들온말 적는 법」(1952. 부산: 문교부) 머리말.

7) 인, 지명 원지음에 대한 자문

다른 나라의 사람 이름과 따이름을 그 본고장의 발음에 가깝도록 옮긴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중략) 특히 사변 관계로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유엔 각국의 군인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게 된 것은 크나큰 수확이었다. (11개국 17명 성명 생략)
「들온말 적는 법」(1952. 부산: 문교부) 꼬리말.

8) 원지음 한글 대조표

“소리표의 한글삼기”(音聲記號의 한글化, Koreanization of Phonetic signs)
낱소리의 맞대기(한글 맞대기틀)

p ㅂ, f ㅍ, t ㄷ, k ㄱ, ts ㅈ, ch ㅊ, l ㄹ 등.

「들온말 적는 법」(1952. 부산: 문교부) 6~8면 표기는 최현배 지은 「한글갈」(1942. 4. 30. 京城: 正音社) 769~772면 온누리소리표(萬國音聲記號)를 한글로 옮겨적기, 낱낱의 대조표와 같은 체계로서 거의 같은 내용인 점에 시선이 쏠린다.

9) 외솔 최현배 편수국장 재임

정부 국어정책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조선 주둔 미군정청 학무국 편수과장(후에 문교부 편수국장) 1945. 9. 21~1948. 9. 21(52~55세 3년간), 대한민국 문교부 편수국장 1951. 1. 20~1954. 1. 21(58~61세 3년간) 2차 재임.

10) 한자 폐지 근본 문제 결정

문교 부(당시 학무 국) 안에 "조선 교육 심의회"가 설치되어, 회원 팔십 여 명이 열심으로 토의를 거듭하여, 해방된 조선의 새 교육의 모든 근본 문제를 결정하였다. 그 중에 글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자와 가로글씨[橫書]의 두 가지를 결의하였다.

(一) 한자(漢字) 폐지 여부에 관한 일(1945년 12월 8일)

1. 초등, 중등 교육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함.

2~5. 생략

(二) 가로글씨[橫書]에 관한 일

1. 한글을 풀어서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나아가는 순전한 가로글씨로 함이 자연적인 동시에 이상적임을 인증함.

2~3. 생략. 「漢字 안쓰기의 이론」(1948. 8. 6. 서울: 문교부) 머리말.

11)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

>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컨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원지음주의는 1948년 미군정청 시기에 최현배 편수국장 주도하에 처음부터 채택된 것이다. 당시 1945년 12월 한자 폐지를 결의하고, 1948년 10월 한글전용을 선포한 배경 속에서 분석해 보면, 그 원지음주의 채택의 근본적 이유는 한글 전용을 쟁취할 묘안이었다고 하겠다. 가령, '북경'이라고 부르면 '北京'으로 쓰게 되나, '베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北京'으로 쓰지 않는다는 단순 논리에 만족했으니까 뒤따르는 여타의 문제를 널리 고려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외래어 인, 지명의 원지음주의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오늘날 구미 각국어에서 이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조사된 약간의 예를 보더라도 저들은 다음의 예와 같이 거의 자국음주의를 취하고 주체성을 견지하고 있어, 오히려 反原地音주의의 성향이다. 원지음주의를 택했다는 우리 외래어 표기는 영어음 추종의 예가 많아 원칙부터 위반하고 있다. 한자로 표기된 인, 지명의 원지음 표기는 그 한자의 현지음을 몰라 보고도 읽지 못하는 무식, 소통의 단절도 큰 결함이다.

12) 인명의 반원지음주의의 예

> Socrates (그) 소크라테스: (영) 소크러티즈, (프) 소크라라트, (독) 소크라테스, (스) 소크라티스
>
> George (영)조지: (프) 조르주, (독) 게오르크, (스) 호르헤, (이) 조르지오, (그) 게오르기오스

13) 지명의 반원지음주의의 예

Greece (영) 그리스: (프) 그레스, (독) 그리헨란트, (라) 그라에키아, (古그) 헬라스, (現그) 엘라스
Hungary (영)헝가리: (프) 옹그리, (독) 운가른, (라) 홍가리아, (헝) 마자로사그
Wien (독) 빈, (영) 비에너, (프) 비엔느, (스) 비에네스, (이) 비엔나
Tibet (영) 티베트, (漢) 시짱(西藏),
Hokong (영) 홍콩, (漢) 샹강(香港),
Macao (영) 마카오, (漢) 아오먼(奧門) 등.

3. 매듭: 고구려 지명의 표기 방안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한자 표기에 관한 규정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 그것은 결국 고려사 문제와도 맞물려 쓰지 못할 규정이다. 역시 옛날부터 우리 땅인 '쓰시마(對馬島)'도 '대마도'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제약에 얽매어야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그 대상의 과거와 현대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이다. 그러면 난감한 이 점은 다음 15)와 같이 쉽게 개선된다. 이것은 중국 연변조선자치주의 현행 인, 지명 표기와도 일치시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4) 외래어 동양 인명, 지명 표기 1)수정안

제1항 한자로 표기된 동양의 인명,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함을 허용하되, 어느 경우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포함.

제3항 위 제1항에 포함.

제4항 한자로 표기된 동양의 인명, 지명 가운데,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지음으로 표기함을 허용하되, 어느 경우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15) 국사 고구려사 서술의 예 5)수정안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佟佳江) 유역의 환인(桓仁) 지방에 자리잡았다. 건국 초기에 집안(輯安)의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기고 활발한 전쟁으로 한(漢)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遼東)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그 집안에는 지금도 환도산성(丸都山城), 국내성, 장군총(將軍塚), 태왕비(太王碑) 등 유적이 옛 제국의 위용을 말하고 있다.

16) 중국연변자치주, 조선말, 인, 지명 표기

독자적인 언어정책을 수립하고, 채택한 "명사와 술어의 규범화원칙"은 4개항이다. 그 4항 인, 지명은 원음을 따르되, 한자의 경우에는 조선음 습관을 존중한다.

예 뿌라우다, 로신(魯迅), 북경(北京), 인민일보(人民日報), 붉은기[紅旗], 연길시(延吉市), 연변대학(延邊大學) 등. 「조선말어휘규범」(1978)

끝으로 지명 표기에서 현재 쓰이지 않는 역사, 지명, 현재 지명과 동일한 역사 지명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거의 불가능한 성격인가? 가령, 서울 지명에서 '鐘路(shôro)'는 현재 지명과 동일한 역사 지명으로 느껴지나, 실제로는 1914년 4월 일제의 경성부제(京城府制) 실시로 생긴 현대 지명이다.

또 을지로(乙支路)는 1946년 10월 개칭된 것인데, 더구나 외국의 이런 사실을 구분하기가 가능한 일인가? 동시에 표기된 그 한자의 자국음이나 원지음의 실상에 대해서도 세심히 유의할 것을 부언하고 싶다.

17) 한자 자국음 교정의 예

高句麗 고구려 → 고구리(漢 gaogouli), 高麗 고려 → 고리(漢 gaoli) 三國志(265~297) 魏志東夷傳, 夫餘 '魏略曰舊志又言, 此北方有槀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 ※槀離 gaoli=高麗.「全韻玉篇」(1972)下73b: 麗[리] 附着, 東國高-(支), [려] 美也, …(霽). 下68a: 驪[리] 馬純黑入駿-, …國名句-(支). [려] 義同(霽). ※高麗 고리, 句麗 리.「新字典」(1915) 麗[리] 附着…, ○高-, 東國名, 고리나라[魏志], 高句-, 在遼東之東, ○陳名魚-(支), [려] 美也….

18) 한자 원지음 변경 문제

簡化字總表(1964. 5.) 附錄 地名: 黑龍江 铁骊县 → 铁力县, 江西 大庾縣 → 大余县, 虔南县 → 全南县, 新淦县 → 新干县, 廣西 鬱林县 → 玉林县, 四川 越嶲县 → 越西县 등. ※铁骊(철리) → 铁力, 大庾(대유) → 大余(대여), 虔南(건남) → 全南(전남), 新淦(신감) → 新干(신간), 鬱林(울림) → 玉林(옥림), 越嶲(월수) → 越西(월서)

19) 한자 원지음의 방언음 문제

중국 香港 지명: 旺角 Mong kok, 石峽尾 shek Kip mei, 樂富 Lok Fu, 우두각 Ngau Tau Kok, 漆咸道 Chat Ham Rd., 北拱街 Pak Kung St., 崇潔街 Sung Kit St., 鶴園街 Hok Yuen St., 佛光街 Fat Kong St., 興發街 Hing Fat St., 利達街 Lee Tat St., 德民街 Tak Man St., 大學 Tai Hok 등.

고구려 지명은 결단코 자국음이어야 하는데, 위 4)에 작은 성의 이름 高麗堡子가 제시되었다. 아마도 거의 '고려(보자)'라고 하겠으나, 위 17)과 같이 '고리(보자)'가 옳다. 일제하에 일본어 'Korai(고려)'로 교육한 오류이니까 기어코 시정해야 한다. 한자의 원지음으로는 18) 중국에서 상용자로 바꾼 한자의 환원, 19) 한자의 방언음, 입성의 표준어화 등도 문제거리다. 이 문제는 논란이 있겠으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규정을 자주 변경해도 안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보완하는 것이야 빠를수록 좋다.